



김민석 국무총리,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

-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-진료체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점검
- ▲응급 ▲산모 ▲소아 등 고위험 분야 배후진료 인프라 강화 추진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(화)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(장소) 서울청사 재난상황실 -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(※ 화상연결)
- (참석) 복지부 2차관, 소방청 119대응국장, 대구 소방안전본부장, 경북대병원, 계명대학교 동산병원,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, 중앙응급의료센터, 대구·경북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

○ 이번 회의는 지난번 ‘광주-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’ 이후,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 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▲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▲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“대구지역은 ’23년부터 ‘대구시 응급환자 이송·수용 지침’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”고 언급하며,

○ “다만, 운영 과정에서 병원-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,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권예진 (044-200-2293)
		담당자	사무관	이예진 (044-200-2289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책임자	과장	송영진 (044-202-2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경 (044-202-2563)
담당 부서	소방청 119구급과	책임자	과장	김인균 (044-205-76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영 (044-205-7631)

